

교육

호남대 '랄랄라스쿨' 자기계발 쑥쑥~

축구명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의 '풋볼드림리그',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IT체험교육시설인 IT스퀘어의 'IT과학재교실', 중국 교육부 지정 호남대 공자아카데미가 중국 교육부 한어판공실 공인 학습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중국어교실', 신(新)한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이끌어갈 특화된 '문화예술 꿈나무 양성', 뮤지컬과 역할극으로 풀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특성화학과 우수 교육프로그램과 IT스퀘어, 문화스포츠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첨단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의 방과후학습 지원에 나섰다.

호남대는 지난 11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중주도 방과후학교(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즐거움 방과후 학교'라는 의미의 '랄랄라스쿨'을 법인명으로 이번 공모에 참가한 호남대는, 방과후학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문화·IT과학·예술디자인·스포츠레저·나눔봉사 등 5개 영역의 특화된 명품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호남대 랄랄라스쿨은 올해 광주전남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 및 전남도교육청과 초·중·고교생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연계체제 구축을 마쳤다.

또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 양성을 위해 호남대 교직학과 및 예체능학과, 공자아카

교과부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문화·IT·스포츠 등 5개 영역 특화 명품교육 시·도교육청과 활성화 지원 연계체제 구축

데미, IT스퀘어, 평생교육원, 사회봉사센터 등 교내 부서 및 YMCA, 청소년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랄랄라스쿨 방과후프로그램은 소통 창의 자기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5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있다. 세계와의 소통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문화, 창의적 기술소양 증진을 위한 IT과학과, 자아실현도구로

서 예술디자인, 자기주도능력향상의 스포츠레저, 취약계층과의 소통으로 나눔봉사아울러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호남대 교수와 대표 강사들이 멘토교수가 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학습을 주도한다.

호남대 랄랄라스쿨 정영기(컴퓨터공학과 교수) 대표이사는 "랄랄라스쿨 방과후프로그램은 교육역

량강화사업 4년연속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평생교육원, 공자아카데미, IT스퀘어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그동안 축적해 온 특성과 교육 노하우와 국제 수준의 최첨단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는 또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랄랄라스쿨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며 자신의 꿈과 지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형 방과후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랄랄라스쿨" 방과후학교 교육신청 문의는 호남대 랄랄라스쿨(062-380-8500)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기관인 호남대가 지난 9월 중국 창사에서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중국 속의 우리 역사찾기(공자아카데미 주관) 프로그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박상철 호남대 기획처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초중학생 53명이 창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사를 답사했다.

조선대, 공간디자인공모전 대상 등 11팀 수상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가 주최한 2012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11개 작품이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원진·조현영·김서연 학생 팀이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고 김광현·박승이 학생 팀이 '스포츠를 잇는 길'로 장려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6팀이 특선, 3팀이 입선했다.

대상을 받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은 상업화되고 절제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이 생활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창조센터, 시민이 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 예술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인전시관을 조성하고 옥상정원을 만들어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이 예술을 체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품은 공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을 감성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제2기 전남대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주임교수 박성수) 수료식이 최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선발된 노사관계 분야 리더 30명으로 구성된 수료생들은 올해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3시간 동안 노사관계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으며, 일본 도요다 자동차 등 선진지역 산업시설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박성수 주임교수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지역에 노사관계전문가를 양성·배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통한 지역경제경쟁력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년 2월 중 모집하는 3기 과정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일보 NIE 방과후 학교' 장성중앙초교 수업



장성 중앙초교 학생들이 광주일보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신문 활용교육'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NIE 통해 나만의 꿈·목표 세웠어요"

"피아노 연습 꾸준히 하는 것", "독서 열심히 하기", "연예인 노래와 율동 배우기"

최근 '신문활용교육(NIE)' 수업이 진행된 장성중앙초등학교(교장 기철호) 도서실. 박정훈 NIE 교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란 질문을 던지자 학생 30여명은 자신만의 실천방법을 앞다퉈 발표했다.

이 수업은 방과후학교 NIE수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 확대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장성중앙초교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광주일보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다. 광주일보사는 교과부 인증 방과후학교 공식 운영기관이다.

장성중앙초교에서의 수업은 주 1회씩(매주 토요일 2시간) 진행된다. 학생들은 광주일보 신문을 교재로 교과와 연계된 시사이슈를 배우고 글을 작성한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 초등(3~4학년), 5·6학년 2개반에서 각각 수업을 듣는다.

이날 수업의 주제는 '신문기사에서 내 꿈과 관련된 단어찾기'였다. 학생 자신의 희망과 관련된 단어를 신문에서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글로 써보게 하는 과제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광주일보를 20분여 동안 꼼꼼히 읽고 강사의 질문에 답했다.

박 교사는 발표를 잘한 학생을 골라 문화상품권 등을 나눠 주며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사례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막연하게 꿈을 품었던 학생들은 그제서야 이해

했다든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은 흥미있는 뉴스가 나온 신문 기사를 오려붙이는 '나만의 신문' 만들기 시간도 가졌다.

스크랩북에 오려붙인 기사 옆에 ▲ 기사를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단어와 어휘 ▲기사의 주요내용 요약·정리 ▲기사가 재미있는 이유 등을 꼼꼼히 적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쉽게 설명하면서 시사이슈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것이 NIE수업의 강점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학생들은 교과공부에도 큰 도움

을 받았다. "신문을 읽는 게 재미있고"라며 "토론·발표 위주의 재미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사는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 트렌드에 맞춘 '자기주도학습', 동영상으로 배우는 '즐거움 한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준 높은 커리큘럼의 수업을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며, 수업료가 저렴하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초교 3~6학년, 중 1~3학년이 대상이다. 올바른 학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어려운 시사이슈·딱딱했던 뉴스 이해 쑥쑥 다채로운 자기주도학습·한자교실 프로그램도

이 한다고 한다.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신문'을 만들며 신문을 스크랩하는 습관을 기르고, 각종 시사이슈를 꾸준히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최지혜(10·4년)양은 "NIE 수업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신문의 역사와 어려운 시사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며 "NIE 수업을 들은 후 딱딱했던 뉴스가 재미있고, 국어·사회 교과서를 읽으면 내용이 속속 이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NIE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기철호 장성중앙초 교장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참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이 있는 체험활동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월간·주간·1일 자기학습 계획·실천계획 세우기, 중·고교 시험 및 대입을 대비 시험계획과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 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기주도학습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가 지도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자율수강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강료·교재비가 면제된다.

지난 3월부터 광주·전남지역 40개 초·중학교가 광주일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내년 신학기에 맞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55).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kook Land Real Estate, featuring '95% Discount' and '20 Years of Experience'.

Advertisement for Namyeong Gangbyeon City, highligh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modern amenitie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Land and Real Estate Brokerage, focusing on high-quality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offering a wide range of property option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featuring 'Nearby Real Estate' and 'Hotel for Sal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specializing in hotel and commercial properties.